광주 남구 장애 아동들, 식물 키우며 성취감도 키운다

방울토마토 등 재배키트 30명에게 제공

8월까지 관찰기록 작성·재배 식물 전시도

광주 남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관내 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재활 프로그램이 부득이하게 축소 운영됨에 따라 대체 일환으로 비대면 체험활동 프로그램인 식물재배 키트 사업을 추진한다.

관내 장애 아동들에게 정서 함양의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식물의 성장 과정을 지켜보면서 관찰력 등의 발달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남구에 따르면 관내 장애 아동을 위한 비대면 체험활동인 '내가 키운 식물은 무슨 맛일까·' 프로그램이 오는 8월 27일까지 석달간 진행된다.

이 프로그램에는 지적 장애를 비롯해 발달 장애 등을 앓고 있는 관내 장애 아동 30명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참가자들은 구청에서 제공한 상추와 방울토마토 등 식물재배 키트를 활용해 식물 재배법을 체험하면서 관찰 기록지를 작성, 식물의 성장 과정을 모니터링하게 된다.

또 단체 카톡방에서 자신이 관찰한 식물 사진을 공유하고, 프로그램 운영 종료 뒤에는 자신이 재배한 식물을 전시할 예정이다.

남구 관계자는 "식물 재배 과정을 지켜보면서 아이들이 식물과 교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심리적 안정감은 물론이고 성취감도 느낄 수 있다. 더불어 부모와 아이간 의사소통도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는 장점이 있어 비대면 체험 프로그램을 준비하게 됐다"고 밝혔다.

기동취재본부

'작년은 이불 빨래 올해는 밑반찬' 나주 공산면, 복지특화사업 눈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독거노인 등 생활취약가구 밑반찬 나눔 지원

나주시 공산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나상대, 오병엽)가 제때 끼니 해결이 어려운 생활취약계층의 위한 건강한 밥상을 마련해 훈훈함을 낳고 있다.

공산면 지사협은 공적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 독거노인, 차상위, 청·장년 1인 가구의 균형 잡힌 식단 제공을 위한 '희망의 건강 밥상, 밑반찬 나눔 지원'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지사협 위원들과 관내 음식점인 '공산한우촌'과 지사협 위원들이 함께 정성들여 장만한 밑반찬은 지난달부터 오는 6월까지 주 1회에 걸쳐 취약계층 14가구에 직접 전달될 예정이다.

나상대 공산면장은 "면민의 건강을 위한 세심한 복지사업 추진에 힘을 모아준 주민들의 따뜻한 정성에 감사드린다"며 "코로나19로 장기화로 인해 주민 복지가 위축되지 않도록 행복한 공동체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산면 지사협은 지난 해 독거노인 등 생활취약계층의 쾌적한 주거생활을 위한 이불 빨래 봉사인 '희망의 새암물 빨래터 세탁사업'을 추진하는 등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세심한 복지사업으로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기동취재본부

광양시 중마동고독사지킴이단, 어르신 안부 확인

65세 이상 독거노인 및 1인 중장년층 등 위기가구 발굴 지원

광양시 중마동고독사지킴이단에서 최근 어버이날을 맞이해 마을 어르신들을 방문하고 안부 확인 활동을 펼쳤다.

고독사지킴이단은 22명의 지역주민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사회와 단절되어 생활하는 65세 이상 독거노인 및 1인 중장년층 등 위기가구 발굴을 지원하고, 정기적인 안부 확인을 통해 대상자와 유대감을 형성하며 고독사 예방을 목적으로 주기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이날은 특별히 어버이날을 맞이해 지역단체에서도 함께하고자 구세군광양교회에서 라면 72묶음과, 지구촌통번역자원봉사단에서 직접 만든 카네이션 55개를 중마동고독사지킴이단에 후원했다.

고독사지킴이단은 자체적으로 준비한 양말 60켤레와 후원물품을 어르신 댁에 방문해 전달하면서 나눔을 실천하고 카네이션꽃을 가슴에 달아드리는 시간을 가졌다.

오인옥 중마동고독사지킴이단장은 "어버이날을 맞이해 지역단체와 함께 어르신들을 섬길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이웃의 일상을 나누는 친구가 되고 때로는 가족이 되도록 이웃과 함께하겠다"고 전했다.

박상훈 중마동장은 "어려운 시기에 이웃 간에 서로 힘이 되어주고자 애써주신 고독사지킴이 단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민관 협력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양=심종섭 기자

곡성군치매안심센터, 노인돌봄서비스 수행인력 치매예방교육

치매 바로알기·치매환자 상황별 의사소통 방법·치매 예방수칙 등

곡성군이 최근 주산교회에서 심청노인복지센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한 치매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총 4회에 걸쳐 실시된 교육에는 전담사회복지사 4명와 생활지원사 48명이 참석했다. 교육생들은 치매 바로알기, 치매환자 상황별 의사소통 방법, 치매파트너, 치매 예방수칙, 뇌신경체조 등 복지 서비스 제공 현장에서 필수적인 정보들을 숙지하며 진지한 모습으로 교육에 임했다.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맡고 있는 A씨는 "어르신 안부만 살피던 기본돌봄서비스에서 대상자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로 전환되다보니 추가적인 교육이 필요하던 차였다. 정말 유익했다."고 말했다. 교육을 진행한 곡성군치매안심센터 전담간호사는 "서비스 수행인력은 노인복지 현장에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분들의 전문성이 높아져야 주민들도 더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곡성군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정기적 치매 검진을 권장하면서 치매 예방과 조기발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치매에 관한 자세한 상담은 치매상담 콜센터(1899-9988) 또는 곡성군치매안심센터(061-360-8992, 8994)로 문의하면 된다.

곡성=양해영 기자